

에세이.

글. 윤은자_Yun, Eun-ja
 육군3사관학교 미주지역연구학과 교수

미국 아동 청소년문학에서 바라본 “집”이라는 의미의 재조명

Understanding the meaning of 'a house' from the view point of American Children's Literature.



연세대학교에서 영어영문학을, 펜실바니아 주립 대학교에서 영어교육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경북 영천의 육군3사관학교 미주지역연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국제 아동청소년 문학 협회(Int'l Research Society for Children's Literature) 일원으로서는 다수의 해외 논문발표와 함께, 현재 한국과 영어권국가의 전래동화와 아동문학 비교연구, 스토리텔링을 이용한 영어교육 등에 힘쓰고 있다.

바쁜 서울 지하철에서 문득 마주친 시, 퇴계 이황 선생의 “가을날에 생각하다”였다. 마침 얼마 전 제출한 연구제안서가 채택되지 않아 기분이 울적하였는데, 이 시가 눈에 번쩍 들어왔다. 공들여 쓴 제안서였기에 그 의미를 몰라주는 심사자들이 야속하던 차였다. 냅뭉 사진으로 캡처했다.



이 시를 읽고는 ‘그렇지... 나를 알아주는 이가 있을 때까지 난 고고히 연구자의 길을 가면 되지’ 라며 스스로 위안을 삼았던 기억이 난다. 물론 나를 저 매화와 퇴계 이황 선생과 같은 반열로 끌어올려 한껏 기분이 고양되기도 했었던 것 같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 핸드폰 속 사진 정리를 하다 다시 이 시를 읽게 되었다. 이때 든 생각은 참으로 동양적인 사회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나를 알아주지 않을수록 세상 밖으로 나가 그 벽에 도전하고 자신을 홍보하라”가 아마 작금에 맞는 대응책일 것이다.

금세기 창의성과 도전을 대표하는 회사로 페이스북을 들 수 있겠다. 그 본사에 가면 “실행해보는 것이 완벽함보다 낫다” 그리고 “두려움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라는 사훈이 벽에 걸려 있다고 한다. 둘 다 꾸준한 도전을 부추기는 말이다. 한마디로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이다. 페이스북 창립자 마크 주커버그가 퇴계 이황 선생의 같은 시를 읽는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아마 그러면 매화나무이기를 거부하고 차라리 민들레 포자가 되어 여기저기 날아가 스스로를 알리고 어딘가에 심기길 바라지 않았을까. 이러한 떠남과 도전의 정신은 미국아동청소년문학에 가득하다.

미국 아동청소년문학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주제는 바로 Home-Away-Home 패턴이다. 즉 이야기의 시작이 집에서 시작해서 집을 떠났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순환구조다. 최근 작고한 미국 아동문학을 대표하는 그림동화작가 모리스 센닥(Maurice Sendak)의 <괴물들이 사는 나라(Where the Wild Things Are)>는 이러한 패턴을 그대로 보여주는 좋은 예다.

주인공 맥스는 장난이 지나쳐 저녁도 굶은 채 자기 방으로 보내진다. 맥스의 방은 나무가 우거진 세상으로 변하고 그는 배를 타고 넓은 바다로 나아가다 향해 끝에 괴물나라에 도달하게 된

다. 그 곳에서 그는 덩치큰 괴물들의 왕이 되어 흐드러지게 소동을 벌인다. 그러다 문득 멀리서 맛있는 냄새를 맡고 집을 그리워하게 된다. 그리고는 말리는 괴물들을 뒤로 하고 아직 저녁밥이 식지 않은 집으로 돌아온다는 내용이다. 물론 이 모든 일은 방에서 혼자 발을 받고 있던 맥스의 상상에서 벌어진 일이다. 명확한 것은 집과 모험, 괴물들, 그리고 다시 집이라는 패턴이다.

우리에게 집이란 항상 돌아와 쉴 수 있는 곳을 의미한다. 아마 인류 최초의 건축은 그러한 기능을 충족시키는 '안전가옥(shelter)'이 아니었을까. 유명한 철학자이며 동시에 수학자였던 라이프니츠는 "사람들이 집을 짓는 것은 자신이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살 곳을 마련하기 위함이며, 과일나무를 심는 것은 자신이 먹고자 함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한다.

일상의 상식으로는 집에 대한 그의 정의가 생소하게만 느껴진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Home-Away-Home이라는 아동문학의 관점에서 볼 때 라이프니츠의 집이란 더이상 'shelter'의 의미가 아니라 도전과 변화를 거친 미래를 위한 곳이 아니었을까. Home-Away-Home의 패턴에서 첫 번째 Home과 Away를 경험한 두 번째 Home은 공간적으로는 같은 장소일 수 있으나, 시간과 실존의 관점에서 보면 더 이상 같은 Home이 아니다. 그래서 맥스가 상상의 여행을 떠나기 전 그의 집과, 괴물이 사는 모험의 세계를 경험하고 돌아온 집은 맥스에게 각각 다른 의미를 부여한다. 그것은 안도감일 수도 있고, 모험을 통한 성장일 수도 있다.

우리는 매일 집을 나선다. 일터가 있는 사람은 일터로, 가정주부와 아이들은 장을 보러가거나 학교로.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아침에 집을 나서기 전과 다른 "내"가 되어서 돌아온다. 그 변화를 의식하기도 하고 때론 일상의 쳇바퀴를 돌고 왔다는 허무감을 안고 돌아오기도 한다. 하지만 그 어떤 경우든 집을 나서기 전과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의 나는 분명 다른 나이다. 매일 매일 새로운 경험을 체험하고 돌아온 나인 것이다. 그 경험이 동료와의 말다툼일 수도, 새로운 직장의 인터뷰일 수도 있고, 한 달동안의 세계여행일 수도 있다. 문제는 그 집을 나서지 않을 때이다. 게으름 때문일 수도 있고, 새로운 경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고, 사람에 대한 실망으로 나를 가두어두고 싶어서일 수도 있다. 박차고 떠날 집이 있다는 건, 크든 작든 새로운 도전을 위한 'Away'를 할 수 있음을 뜻한다. 이 Away는 오늘과 다른 내일을 만드는 과정이다.

아동청소년문학과 우리가 거주할 곳을 마련하는 건축은 이런 면에서 맞닿아 있다. 성장을 위한 모험과 떠남을 가능하게 하는 집이 있다는 것은 건축이 미래를 위해 있다는 말과 상통하기에. 우리는 하얀 눈 속에 핀 고고한 매화나무이길 원할 수도, 척박한 땅에 뿌리를 내릴지도 모르는채 바람따라 떠도는 민들레 포자이길 선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눈덮인 땅 속의 매화이게 두지 않는 것 같다. 그리하여 "집을 떠나라"는 메시지가 가득찬 서구의 아동문학이 우리나라 출판시장에 넘쳐남은 이런 연구가 아닐까싶다. ▣

WHERE THE WILD THINGS ARE



STORY AND PICTURES BY MAURICE SENDAK

Where the Wild Things Are by Maurice Sendak(1963)